

의심할만한 이유의 한도를 넘어서

BEYOND A REASONABLE DOUBT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23가지 정당한 논쟁

만약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함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인간 역사적으로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럼으로 또한 이것이 역사적인 관점에 신뢰할 수 있는 하나에 가장 중대한 것으로 기반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실은,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역어주는 가장 중요한 뼈기 핀(LINCHPIN: 옛 바퀴를 굴대에 고정시키는 핀(뼈기))으로 써, 모든 당연한 원리의 요구와 모든 축복을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허위라고 증거 한다면 그리스도는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처럼 허물어져 버리고 별로 결점을 보충할 공로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예수님이 "선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은 그의 가장 중요한 예언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라고 가르친 것이 - 거짓으로 나타나기 때문 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매달려 있는 기록된 역사 배경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써 가장 신뢰성 있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예수님의 **출생과**, **삶과**, **죽음과**, 그리고 특히 그의 **부활** 입니다. 부활이 역사상 사실 이라고 깊이 간직한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을 유지해 주는 요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어느 부분이든지 역사상으로 정확한 구절들에 대하여 의심스런 생각을 품으면 우리 구원의 근본원리를 가치가 적게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역사상으로 주장하는 매우 중대한, 곧 우리의 구원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으로, 그 부활의 역사적인 것에 대하여 논쟁하는 자들은 증명할 의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도의 선언 중언 증거를 반박 하고자 할 필요를 노립니다. 그러나 참으로, 사도 바울의 전체 직무가 부활의 바탕에다 세웠고 또한 그가 직접 우연히 만난 살아 계신 그리스도 로 인해서 그의 흔들리지 않는 각오가 발전된 관경의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14,20

-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 (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 (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 (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얼마 후에, 바울의 공중 선서증언에 예수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복음의 선언이 예배소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게 되었으므로 로마 관원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데려다가 보호 했습니다. 그 후에 로마법을 따라 심문 소에 여러 번 호소했고, 그 자신이 왕 아그립바 앞에 서게 된 것을 발견했으며, 맨 나중에는 황제 앞에서 손수 호소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자유로 말하라는 허락을 받았을 때, 자기에게 가장 열렬한 사건 곧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만난 살아나신 그리스도 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부활에 대하여 밝히니까, 베스도가 바울더러 미쳤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능숙한 바울의 대답이 인생 역사책장마다 내내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6:25 와 26

(25)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26)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 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때문에 우리 모두 여기에 따르는 역사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에 증명하는 것들에 의심만한 이유를 넘어서 증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그 부활 서술들이 역사상 사실이라고 옳고 있다.

그 부활의 서술들이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의 틀림없는 표적들 로 들어내 줍니다. 이 기사들의 맨 초기에, 사나운 적의 증거인들이 활기 칠 때, 하나에 조립을 만든 것들이 있어 불가능 하고 위험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과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하여 신중하게 논쟁 하고 있지만, 거기엔 신용 하고 기준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고 모두 시시하게 만든 일들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들은 각각 아주 독단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게 드러나지만 서로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좀 더 속속들이 깊게 조사하면 할수록, 나타난 증거들이 하나도 서로 반대 되는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헨리 몰리스 (HENRY MORRIS)라는 분이 쓴 대목을 읽어 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규율에 여러 사람이 각자가 경험한 선언증언들을 모아서 확실한 증거를 잡는데 그중에서 이상한 반박을 주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조사를 세밀히 하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선언증언들도 이와 똑 같은 실정입니다. [1]

2. 사도 바울의 직무 와 그의 생활이 부활의 강한 증거가 된다.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무렵에,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맹렬한 적대 자 이었습니다. 높은 지식을 받은 분으로서, 모세 유전에 일치하지 않거나 반대점이 있는 것은 아무데나 십사리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메시아가 어떠한 분일 것이다 하고 기대한 것을 떠나 십자가에 고문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메시아를 믿는 다는 아이디어는 전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라고 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완전히 확신하고 자기의 생활을 살아나신 주를 위해 온전히 바쳐서 부활의 현실에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캐논 캐넬트 (CANON KENNETT)분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몇 년 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강력한 증거가, 적어도 한사람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알려진 것은 전혀 거부할 수 없습니다. [1]

3. 비어있는 무덤이 역사에 있다

신약성경에 대한 역사 저작가 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두었는데 그 무덤이 나중에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의 대적이 시체를 훔쳤거나,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거나, 아니면 예수가 진정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라고 합시다, 이것이 아주 불가능한 이유는 그의 대적 일 것 같으면 아마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창피주기 위해서 그 시체를 진열장에 진열해놓고 이 사람이 살아나지 안했다는 증거를 잡아 소문을 퍼뜨렸을 것이기 때문이고, 모세유전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모든 종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또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가져갔다 하는 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인 것은, 그의 고난 후에 제자들이 너무 너무 낙심했음으로 그가 부활 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이야기를 꾸며 냈다는 것도 아주 터무니없는 말이 됩니다. [이 점을 더 공부한 [예수님의 매장](#) 을 읽어 보세요.]

4. 이 제자들이 열성적인 유대인 이다

이 제자들이 유대인의 특별한 것과 그들의 직무들을 신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으로 그들이 그 종교를 떠나서 사사로운 종교를 꾸며낸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첫-세기 유대인으로써, 이러한 행위는 고린도 전서에서^{15, 22, 29}에서 바울이 논쟁하는 (십계명을 대적하는 "거짓 증인" 이라고 한 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거짓 행위입니다. 첫-세기 유대인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짓 말과 그의 계시를 부패시키는 것이 그들의 구원을 위험하게 할뿐더러 기다리는 **메시아의 나라에서** 활약권도 방해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잠시 동안 종교 선두의 권세를 맞보자고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말 할 것 없이 **아닙니다.**

5. 여자들의 선서 증언

무덤에 가 있는 여자들이 장사된 성경 기록을 강하게 증명해 줍니다. 첫 세기 시절 유대인들이 여자들의 말은 무조건 신용해 주지 않았고, 법에서도 여자들의 선서 증언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남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이 여자밖에 없으면 그 증거만으로 그 남자를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진실성을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중에 덧붙여 꾸며낸 이야 기였다면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난 일이 아닌 이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에 본 증인을 **어째서 여자**로 정했을까요? 여자가 그의 부활하신 선서증언을 하니까 남자제자들이 그것을 부인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며 더구나 이 남자들은 그리스도의 첫 인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에 꾸며낸 이야기를 교에서 나중에 덧붙였다면 정말 그 첫 인도자들의 꼴을 빛나게 해 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6. 없어진 시체와 텅 빈 무덤이 유대 조직 선전 이라고 합시다.

유대 성전 세력 관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온 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의 제자들이 훔쳐 갔다고 거짓말하라고 하고 또 그의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세력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 일어나는 파들을 할 수만 있었으면 문제없이 짓눌러서 예수님의 죽은 몸이 다시는 활약을 부리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은 그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7. 믿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대적이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봅시다

만약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안했다면 그의 시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약에 그의 대적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감추어 놓고 보이지 안했다면, 오히려 그게 부활을 소문 내고자하여 안달하는 사람들의 용기를 더 북돋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대적이 시체를 훔쳐가지 안했다는 것을 단정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것을 당장에 큰 배우승차로 만들어서 그 부활의 이야기를 완전히 무마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레인 크레이크(WILLIAM LANE CRAIG)이라는 유명한 분의 논쟁 말씀에:

"역사적인 증거의 가장 높은 품질이, 그리스도인들로 된 것이 아니고 초대 교인들의 대적들에게서 난 것입니다." [7]

8. 무덤에 대한 숭배가 없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안했다면, 어째서 그의 제자들이 한 번도 종교 선두들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그의 무덤을 숭배하는 기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막는 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들의 무덤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의 시체를 들어다가 감추어 버렸습니다.

9. 그리스도인이 아닌 역사학자들이 부활을 인정하는 선서 선언을 한다.

첫-세기 유대인 역사학자, 요셉이라는 분이 예수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도가 퍼지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중에서 원리를 충고하는 분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을 내릴 때, 처음부터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를 버리지 안했음은; 그가 삼일 후에 살아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났음으로 인하여; 여러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것과 그에 대하여 천만가지 좋은 일들에 대하여 예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

스토 지파가, 그의 이름을 따서 낸 것이 오늘날 색다른 일이 아니다. [4]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분의 증거를 세속적으로 신념 하는 선서 선언이라 해서 허위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요셉의 기록이 유대인과 로마인에게 잘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한층 더, 그는 한 로마 시민으로써 아주 존경받는 분 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의 비난 자들에 의한 기록에는 이 분에 작품의 구절에 반대한다는 말이 하나도 없으며, 만약 요셉이 나중에 허위 증거를 덧붙였다면, 이점을 터놓고 논쟁한 작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난자들의 조용함 은 그것이 허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네 소유가 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10. 초기 에는 기록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할 다른 길이 없었다.

초기 역사는 그리스도인 교가 퍼지는 것에 대하여 누가 감히 설명해주는 "사실"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 관경이 이야기로 제작될 때에는, 아직 비평가나 혹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자들이 그 도에 언짢게 여기는 자가 생기지 안했을 때 이므로 이일에 대하여 어떠한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일어난 단 하나에 합당한 설명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뿐입니다.

11. 부활하신 후에 다시 나타나신 것을 일체하는 증거들의 성경기록들.

네 복음에서와 사도바울이 준 부활 후 나타나심의 일체된 증거가 열 번입니다. 이 기록들이 동일하고 서로 단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증거의 짐 담당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자 들에게 있습니다.

부활 후 나타나신 열 개, 그것들 순서가 이렇게 따름이다:

1. 막달라 마리아 에게 (마가복음 16:9; 요한복음 20:11,18)
2. 다른 여자 에게 (마태복음 28:9-10)
3. 베드로 에게 (누가복음 24:34; 고린도전서 15:5)
4. 엠마오 길에서 두 사람에게 (마가복음 16:12; 누가복음 24:13-35)
5. 열한 제자들에게 (도마는 때놓고-누가복음 24:33,49; 요한복음 20:19,24)
6. 팔일 후에 열두 제자에게 (요한복음 20:23,29; 고린도후서 15:5)
7. 디베라 바다가 에서 일곱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1:1,23)
8. 일시에 오백여 형제에게 (고린도전서 15:6)
9. 야고보에게 (고린도전서 15:7)
10. 승천하실 때 열 두 제자들에게(사도행전 1:3,12) [5]

12. 그리스도의 새 몸 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생소한 개념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는데 거기에 또 메시아가 **다른 몸을** 입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럼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꾸며 낸다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일이며, 그때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오늘날 꾸며낸 과학과 같이 생각 했었습니다.

13. 현대 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그의 몸이 부활했다는 것의 강력한 증거를 인정하고 있다.

다른 학자들과 J.P MORELAND (제이. 피. 몰랜드)라는 분이 이일에 확증한 글:

오늘날 신약 성서 학자들은 거의 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실제 육체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정신 상태의 환각으로나 혹은 물체적 환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어떻게 경험한 것들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심적인 신약성서 학자 NORMAN PERRIN (놀먼 필린)의 단정: "우리가

예수님 나타나심에 대하여 공부해보면 불수록, 그의 증거가 더욱더 움직이지 않는 바위 위에 나타납니다." 영국 DURHAM UNIVERSITY 의 신학 대학 DUNN 교수님의 동감: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의 나타나심을 깨달은 경험은 그리스도 역사에 뿌리 박은 것에 대하여 논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7]

RUGBY (럭비)와 OXFORD (옥스포드) 역사대학 교수,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역사교수들 중의 한분이신 THOMAS (탐머스) ARNOLD (알놀)이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아래와 같이 평서문을 썼습니다:

나는 인간이 기록한 역사상 사실을, 가지 각 종류로 풍성한 증거를, 공평하게 묻는 자들에게 보충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큰 표적 외에 거기다 비교 할 수 있는 것을 기록한사람을 아무도 보지 못 했습니다. [7]

SIMON (사이만) GREENLEAF (그린리프)는 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가장 높은 법적인 마음인 사람들 중의 한 분입니다. 이분이 법정의 증거들에 대한 전문 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HARVARD (하바드) 법학을 처음 발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네 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그 안에서 그들이 간증하는 확실한 증거들을 연구한 결과가 이러합니다:

예수가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또 그들이 이 사실을 다른 사실들처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토록 그들이 말하는 사실들을 주장 안에서 신념 했다는 것이 매우 불가능한 일입니다. [7]

㉔. 부활에 대하여 믿고 따르는 자들의 확신.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처음 기록해서 발행한 사람은 이 사실을 믿은 자 들입니다. 그들의 확신은 텅 빈 무덤으로만이 아니라, 매장 후에 예수가 살아나신 것을 그들이 직접 본 사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두 번만 보인 것이 아니라, 보인 기록이 열 번인데;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에게 뿐만 아니라, 두 명씩, 일곱 명씩, 열 명씩, 열한 명씩, 그리고 단번에 오백 명에게 나타났습니다.

㉕. 부활에 대하여 믿고 따르는 자들의 순교

초대교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확신으로 선포했으며,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의 친구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감추어 놓고 그가 부활한 것처럼 꾸었다면, 그들이 믿은 것도 거짓이었고, 사람들은 보통 거짓을 위해서 순교 하지 않습니다.

㉖. 눈으로 본 그것들의 의견이 일치한 증언, 이 사람들이 다 속았거나 혹은 혼돈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비난 자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본 것이 오늘날 팝 아이칸 ELVIS PRESLEY (엘비스 프레슬리)를 "본"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환상 혹은 환각을 본 것이라고 말 합니다. 이것이 우려낸 환상이 아니었을 까요? 꿈이었을 까요? 하나에 격한 상상의 몽상이었을 까요? 어쩌면 유령 이었을 까요? 이 모든 것이 있음직한 것이 되지 못함은, 다른 그룹들의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환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백 명인 사람이 다 똑같은 몽상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현대 그리스도인 변명 가들은 그리스도가 사실 육적으로 살아났는지 안 났는지 거기에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영"이 하나님에게 로 갔기 때문 이라고 논쟁합니다. 그럼으로 예수가 죽은 후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하나님 곁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전과 유심론자의 관념이 히브리 마음을 가진 제자들을 만족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몸을 살릴 때까지 죽은 자는 죽어있는 것, 곧 육체를 부활

시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4]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기 제자들의 그리스도의 육체로 부활 했다고 할 수 있게 증거 한 것과 역사적 바탕으로 요구하는 것을 빼 놓으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관적 [그럴 수 있다 하는 의견]으로 바꾸게 됩니다.

7. 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신경 쓰였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빼놓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경은 기대조차 할 수 없었으며, 그리고 이 관경 후에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허탄한 말"로 취급했습니다 (누가복음 24:11).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보여 주실 때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HENRY MORRIS (헨리 모리스)분의 기록에:

한 가지 확실한 것: 제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상상한 것을 가지고 꾸며낸 이야기 일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은 이 관경에 대한 것에 충분히 예언해놓은 기록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 그들을 믿게 했다. [4]

8. 부활하신 메시아의 아이디어가 유대인들에게는 팔기 힘들었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때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상상은 오늘날 현재 예수님을 그려 노은 사진이 아니었고 (왜냐하면 그들이 바란 것은 신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통치자가 나서 이방인에게 눌린 이스라엘을 건져낼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사실 (고난 후 부활)을 믿을 수 있게 설명하기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편 그리스사람들은, 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믿음의 교훈 때문에, 육으로 부활한다는 아이디어가 어리석고 그렇게 될 필요성을 가지지 못 했습니다 (사도행전 2:22). 만일 제자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어 세우고자 해서 이야기를 꾸며냈을 것 같으면, 그때당시의 믿음을 기준하여 꾸며냈을 것입니다.

9. 단지 부활로써 무덤에서 나오셨을 수 있었다.

"SWOON(기절)"이라는 이론은 예수님을 매장 했을 때 그가 아주 죽은 것이 아니라 하고, 그러므로 그가 다시 "깨어났다"하고 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 치면, 그가 무척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을 터인데, 매장할 때 몸을 두껍게 쌓은 것을, 그가 풀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그보다도 무덤 아귀에 막아놓은 그 큰 바위를 옮기고 나온다는 것은 정말 가망 없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로마 법원에서 그 문을 엄하게 봉해 놓았으므로, 만일 그 바위를 옮기는데 성공 했을 지라도, 보초병이 그를 잡아서 더 심한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경이 기록에 없으므로, 이러한 일이 없었던 것이 사실인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의 대적들이 이 일을 가지고 아주 기괴한 일로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있는 그리스도교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나중에 그리스도 이야기에다가 더한 것이라고 하며, 몇 년 후에 교회가 죽은 영웅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연구해 낸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알려지기를, 성경이 아니고도 역사에 기록되었는데, "TIBERIUS (타이버리어스)의 통치 때에 그리스도라고 알려진 도가 현존했고, 그 도가 현존한 근거가 그들의 믿음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데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나중에 그리스도교에다 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부활이 그리스도의 자극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역사에 기록된 것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본 것에 의지했습니다. 기록된 것은 그들의 믿음에 결과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도교임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그 믿음 전체가 허위가 됩니다.

11. 그 제자들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새 종교를 시작하여 소동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고난, 조롱, 적의, 그리고 순교를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밝혀보면, 만일 그들이 허위를 가르치고 다녔다면 그들이 이 모든 고비에 흔들리지 않고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교는 그것에 보상이 있는데, 그들의 보상은 성실한 믿음으로 진실을 위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22. 초기 그리스도 인도자들의 단합한 증언.

만일 텅 빈 무덤과 부활이 꾸며낸 것이라면, 어째서 그의 제자들 중의 적어도 하나라도 그들에게서 갈려서 그의 나름대로 다른 그리스도를 세우지 안했을까요? 아니면 왜 그중에서 한사람이라도 그것에 허위를 들추어내지 안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성전 권세 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밝혀 주는 자에게 큰 보상의 돈을 주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혹은 보상금으로 족하지 못했으면, 부활이 허위라고 당장에 증거 잡아가지고 이단이라고 몰아서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풀어 버렸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가 증명하기를 이것이 굉장히 인기였고, 금을 찾는 기회였다고 합니다.

부활의 강하고 믿음직한 증거가 없었으면, 계속 단합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인도자들을 자기를 승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향을 밝혀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진실한 메시지에 위탁했고 계속한 그들의 단합과 거짓 없는 순전한 계시라고 가정하는 것이 단 하나에 적당한 설명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허위를 행하는 자들은, 특히 고난이 닥치면 서로 오래 단합하지 못합니다.

23. 부활에 대하여 신청한 모든 엇갈린 설명들에 신용이 부족하다.

텅 빈 그 무덤이 밝혀진 증거, 부활해서 나타남과 그리스도인 교가 번창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치에 맞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이 잘 확립된 역사적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의 상 재판소에서는, 이러한 증거가 있으면 누가 이와 정반대되는 증거를 대어 "의심할 이유가"있지 않는 이상에 확신허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엇갈린 설명들과 이론들이 심히 의심스럽고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반대방향이 됩니다.

그럼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에 맞고, 현명하고, 그리고 그들이 언제고 이렇게 잘 확립된 역사적 관경에 믿음을 의지하면 완전히 상식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역사적 증거로만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엄청나게 비싼 유리한 것들을 미래에 약속해 놓았습니다.** [7] 성경을 따라서는, 사람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약속은, 개인적으로와 집합적으로 양편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에 매어 있습니다. HALLEY (할리)라는 분이 쓰기를:

"인생에게 이토록 단순한 믿음을 심어준 것이 얼마나 원기 왕성한 영광인가.
우리의 부활과 영생은 어떠한 철학으로 영원한 생명을 추측한 바탕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7]

번역: 김영순

편집: 김정숙

